



[뉴스] 인터넷신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찬반논란 팽팽 02



Economy

코스피	2041.74 (0.00)	코스닥	696.47 (0.00)
금리 (미국 3년)	1.59 (-0.04)	환율 (원/달러)	1190.90 (+2.10) (5.31)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나라... '삶의 질'에 답 있다

metro 17th 창간기획 한국경제 갈 길을 묻다

지난해 출산율 0명대 진입
올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작
2065년 '가장 늙은 나라'로
인구변화로 미칠 영향 예측
시나리오별 정책 마련해야



통계청은 “1년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01명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작년에 이어 합계 출산율이 1.0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줄고, 평균 출산연령이 지난 2000년대 초반 29세에서 지난해 32.8세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결혼도 크게 줄었다. 1분기 혼인도 5만 9100건으로 전년 대비 10.7%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 8900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출생아 수에서 사망

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지난해 2만 8000명으로 1년 만에 61.3%나 줄어들었다. 역대 가장 큰 낙폭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돼,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양 부담은 커진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통계청은 오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3.2%에서 45.4%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13.8%에서 4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창간기획 3~4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현충일을 나흘 앞둔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가족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생 아이 한명 안 낳는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또 떨어졌다. 36개월 연속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8만 3000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이다. 특히 3월 출생아는 2만 71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900명(9.7%) 감소했다.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에 1.01명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지속 추락해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마지노선은 2.1명이다.

車보험료 6일부터 일제 인상... 최대 1.6%

업계, 상반기만 두번째 인상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이달 6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6%까지 일제히 오른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두 번째 인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확정했다.

KB손해보험은 6일부터 보험료를 1.6% 올리기로 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7일과 8일에 1.5%씩 인상한다. 10일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가 각각 1.5%, 1.0%, 1.4% 보험료 인상에 들어간다. 메리츠화재는 15일부터 보험료를 1.2% 올린다.

<손해보험사별 車보험료 인상률·시기>

보험사	6월 인상률	인상 시기
삼성화재	1.50%	6월7일
현대해상	1.50%	6월10일
DB손해보험	1.00%	6월10일
KB손해보험	1.60%	6월6일
메리츠화재	1.20%	6월15일
한화손해보험	1.50%	6월8일
롯데손해보험	검토 중	
흥국화재	1.40%	6월10일
약사손해보험	1.50%	5월29일

약사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이미 1.5% 인상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올해 1월

3~4%를 올린 이후 두 번째 인상 추진이다. 보험업계는 당초 1.5~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추산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은 1.5%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데다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분 보상 기준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상에는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됐을 뿐 손해율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치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해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메트로경제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심층정보를 보다 집중 발굴해 지면과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경제는 빅데이터 시대, 미디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17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취재(수습)기자
- 모집내역: ① 전향방법
 -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 역량평가 ▲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19년 5월 27일~ 2019년 6월 12일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6월 12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26)

metro

“미래위한 투자·채용 흔들림 없이 추진”

삼성 사장단 글로벌경영 점검 이재용 부회장 “초격차” 강조



180조원 투자와 4만 명 채용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격차를 강조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전자 관계사 사장단은 지난 1일 화성사업장에 모여 글로벌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단기적인 기회와 성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삼성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초격차를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50년간 지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며 “작년에 발표한 3년간

또한 이 부회장은 “삼성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마련한 133조원 투자계획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남 부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동시에 수백 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사장들도 공감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고 언급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